3 - AUG - 9
Copy ______ 1960

—당신은 아직까지도 이걸 못 봅니까?

시사만화잡지 활살

1955.11(60)

위대한 10월 혁명의 산아인 쏘베트 군대는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다

억압과 착취로부터 조선 인민을 해방시켰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건설의 길을 열어 놓았다

장진광 그림

1917 1955

가장 위대한 일

38

서만일

장구한 력사를 통하여 인류는 많은 위대한 일을 해 왔다.

그 많은 위대한 일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업적은 사회주의 10월 혁명이다. 그것은 이 위대한 혁명이 실로 인류에게 새로운 세기의 려명으로 되였기 때문이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고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행복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수 있는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게 한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압박 받는 인민들에게 삶의 의의를 깨우쳐 주고 자유와 권리를 찾아서 지향하는 투쟁을 고무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10월 혁명은 온 인류의 환희며 희망이며 량심으로 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주의 혁명은 매개인의 운명과도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비록 그가 어느 하늘 밑에서 산다 해도 즉 대기도 얼어 붙는 북극에서나, 또는 남국 찌는 햇볕 아래서나, 혹은 달도 흐릿한 이름없는 적은 섬에서나, 아니면 광활한 대륙 한 복판에서 산다 해도 그리고 그가 이미 험난한 삶을 겪어온 늙은이거나, 혹은 아직도 꿈이 여물지 않은 어린이거나, 로동자거나, 농민이거나, 학자이거나, 발명가이거나. 만약 그가 자기 한 평생의 삶을 헛되히 보내지 않으려면 그 우람찬 10월의 함성을 자기 생활에서 웅장하게 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은 행복에의 계시이며 투쟁의 산 모범이며 승리를 담보하는 온갖 힘의 원천이다.

우리 조선 인민도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로씨야에서 높이 오른 10월의 포성에 의하여 비로소 세기적 잠을 깨였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했다.

피 묻은 1919년 3월의 나날에 인민은 10월 혁명의 직접적 영향 하에 전 조선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봉화를 올렸던 것이다.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의 지도 하에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으며 전체 조선 인민들은 이에 고무되면서 해방의 서광을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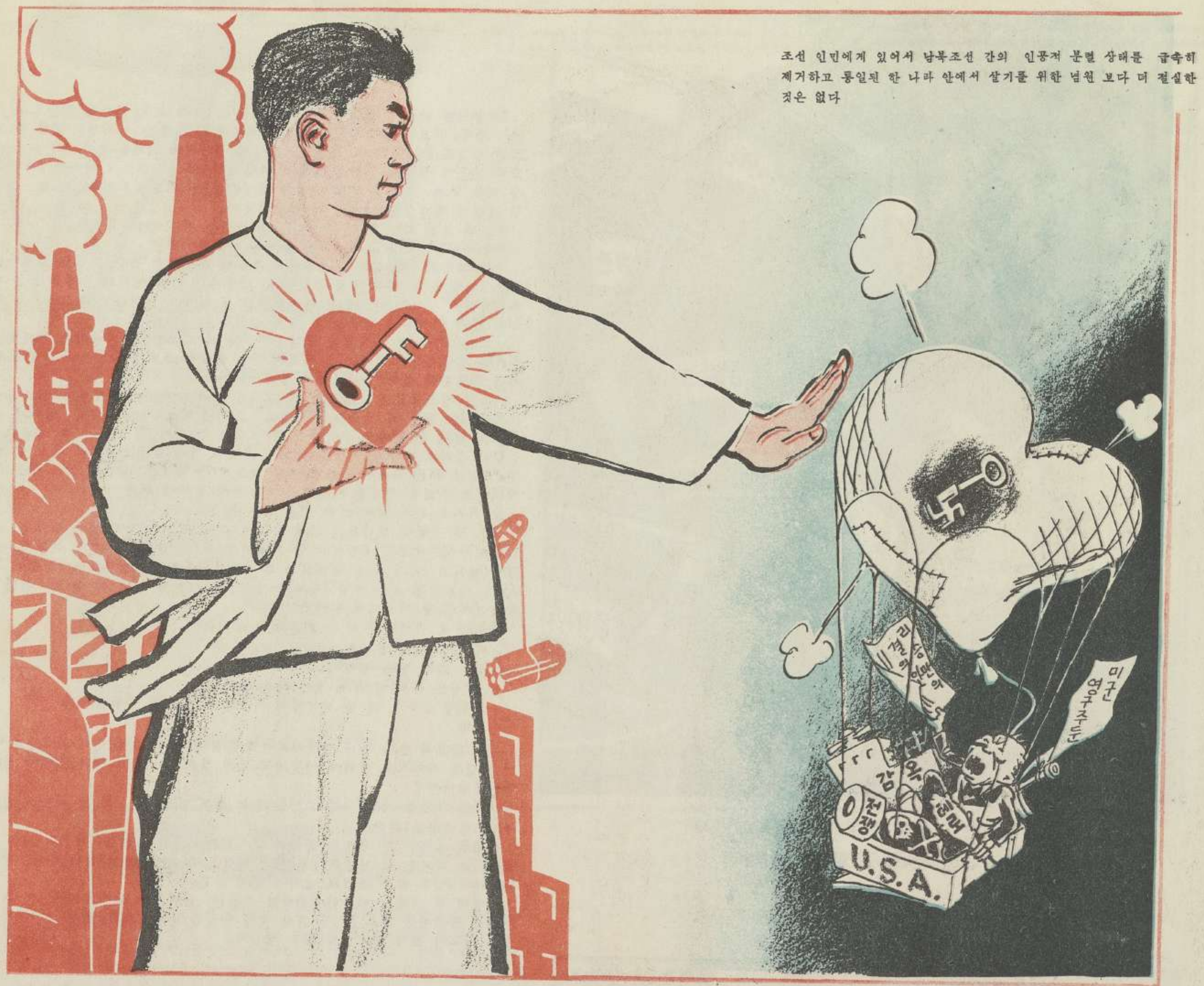
위대한 10월 혁명의 산아인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조선 인민은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한 무력 침공자들을 물리친 3년 여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후 복구 건설에 궐기하여 민주 기지를 반석 같이, 강화하며 사회주의 기초 축성을 위한 장엄한 로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조국을 통일시키지 못했으며 완전 독립을 전취하지 못했다.

지금도 우리들의 남역 형제들은 저주스러운 요마같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간악한 테로와 학정 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조국 통일—이것은 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의지이며 지향이다. 조선 인민은 반드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의 위업에서 승리할것이다. 그것은 백전 백승의 당인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 의하여 지도되며 고무되는 조선 인민이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로의 길인 위대한 10월 혁명이 열어 놓은 길로 한결같이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 상에 실현되고 있는 력사적 변천들은 그 모두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 련결되여 있다.

조선 문제 해결의 열쇠!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남북조선 간의 인공적 분렬 상태를 급속히 제거하고 통일된 한 나라 안에서 살기를 위한 념원 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것은 조선 인민의 손에 있다

송용남 그림

미련한 놈들의 "장한몽"

우리 조선에는 "미련한 놈 가슴에 고드름이 안 녹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에는 고드름이 안 녹기는커녕 더욱 더덕이로 응결된 미련한 놈들이 있어 웬 호박에 송곳도 안 들어갈 미련한 『결의안』을 가지고서 떠들석하게 라팔을 불고 있다. 그것도 『한국 통일 및 안전 보장에 관한 결의안』이라 하여 이미 『주미 대사』 량 유찬의 입을 통하여 떠벌인 제 상전의 『복안』 그대로 꾸며진 『결의안』을 내돌고서 마치도 주막집 강아지 날뛰듯 발광들을 하고 있으니 더욱 가소로운 일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은 『침략자』이며 북조선에서 중국 인민 지원군만 철거하라고… 그리고는 소위 남조선 『국회』가 『보류하고 있는 백석의 의석』을 채우기 위하여 유•엔 감시 하에 북조선에서만 『자유 선거』를 실시하자고……

글쎄 세상에 아무리 미련한 놈들이라손 어찌 침략과 자유까지도 분간을 못할 수가 있는가 말이다. 오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놈들이 한것—3년간에 걸친 불지랄—은 침략이 아니고 그 불지랄을 막기 위하여 궐기한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 지원군들의 정의의 투쟁을 『침략』이라고 하니 세상에 이렇게도 뻔뻔스럽고도 미련한 놈들이 어데 또 있으랴… 이야 말로 "도적질 하다가 얻어 맞고서 강도요"하고 소리치는 놈과 조금도 다를게 없다.

그 뿐인가? 『자유 선거』란 허울 좋은 말을 또 뇌깔이고 있으니 이거야 정말 익은 밥 먹고 선소리 하는 미련한 놈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닌 그 빛갈 『좋은』 유•엔 깃발의 그늘 아래에 땅크와 총검으로 강행한 5.10 망국 단선의 『국』은 고사하고라도 모든 진정한 자유를 글짜 그대로 자유로이 유린하는 『테로와 강압의 자유』만이 있는 제놈들의 『자유 정책』을 어느 누가 모른다고 오늘 또 다시 『자유 선거』란 말을 떠벌이는가 말이다. 그것도 더우기 중국 인민 지원군만 철거하고 미군은 계속 남아 있는 조건 하에서 『자유 선거』를 실시하자고 애절하게 짖어대고 있다. 허기야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하는 미련한 놈들 깐에도 『자유 선거』는 하데 그러나 『테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제 상전의 『침략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되리라는 타산을 하고 있는 데서 미군의 영구 주둔을 애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런가 하면 또 이 미련한 놈들은 조선의 정전을 공고히 하며 평화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보장으로 되는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해체와 나아가서는 조선 정전 협정의 폐기를 계속 『주장』하는 『결의안』으로써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문제는 뻔하다.

최근 시기 회담의 정신이 일련의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엄연한 사실에 당황 실색하여 진땀을 흘리고 있는 제국주의 호전 분자들의 국제 관계에 대한 비관적 울부짖음에 뒤 어울어져서 우짖고 있는 이 미련한 놈들의 "장한몽"은 어데까지나 제 상전의 『침략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이……

"장승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이 미련한 놈들의 『결의안』은 이 밖에도 귀가 막히게 깜찍스런 『자유 보장』을 위한 "장한몽"이 포함되여 있다.

마치도 제놈들의 『결의안』이 조선 인민들의 결의를 말하는 그 무엇이나 되는 듯이……

그렇다! 분명히 조선 인민들은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다. 그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며 제 상전의 『침략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남조선의 몇몇 미련한 놈들이 조작한 『결의안』을 견결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시키기 위한 민족적 념원을 기어코 실현하고야 말 숭고한 결의를 한결같이 굳게 하고 있는 것이다.

승 화

잠간만 발길을 멈추시요

리영춘 그림

일부 기업소 지도 일군들 중에는 하부의 의견이나 창발적 제의는 묵살하면서도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덮어 놓고 호통치거나 또는 약간의 성과라도 있으면 자기의 공명에로 돌리고 하는 사업작풍이 있다

—당신은 덮어놓고 우리를 묵살하면서
무슨『성과』를 자랑할 셈입니까 ?

『향락 생활』의 슬픔

"오늘이란 일생에 두번 다시 오지 않는 것인 즉 오늘 하루를 향락으로 보내야 한다" 이것은 평양시 인민 위원회 상업부 전 부부장 리 기철의 굽힐 줄 모르는 완강한 『주장』이다。 그래서 그는 혹 상부한테 비판을 받게 되여도 —괜찮아 그들이 생활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더욱 굳게 고수할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어떻게 『성과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고 『연구』하는 데 열중하였다。

어느날 그는 식량 취급 지도원인 윤 기선을 자기 집에 불렀다。

—동무가 저 시설 트레스트에 검열을 나갔었다지?

—네 그런데 53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부장 동무께서 손수 검열을 하셨다든군요 그런데 그 행정 경리 부원인 강 남영이가 근 10여톤의 국가 량곡을 횡취했습디다 그러나 부부장 동무께서 며칠 전에도 검열을 나오셨더라고 하는데 제가 주제넘게 취급을 할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저……

—그런데라니 한잔 먹었단 말이지! 하 하— 과연 강 남영이는 약빠르고 유쾌한 친구거든… 리 기철은 나오지 않는 웃음을 소리내여 웃노라고 담배 연기가 목구멍에 들어가 기침까지 쿨럭 쿨럭……

—그가 정원대로는 식량표를 타 갔지만 실제 수배자가 그렇게 못 됐으니… 그것을 2년 동안 해 먹은게 아니겠소 그러니 여보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남이 좀 향락을 부리면서 잘 살자고 한 일에 뭐 우리가 그 사람하고 원쑤나 졌다고 고주알 미주알 캐면서 못살게 할거야 있소? 그래 여보 술 한잔 먹으니 당신 좋아…… 그래서 말 없으니 강 동무도 좋아… 서로 좋은 일 아니겠소 우리는 향락을 누리면서 명랑하게 살아야 하오

윤 기선도 신이 나서 그의 말을 받는다。

—네 더 이를데 있나요— 이렇게 되여 그 후도 또 강 남영을 찾아간 리 기철이와 윤 기선은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타령을 부르게 되였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리 기철은 아주 유쾌하였으며 『생활의 환희』에 사로잡힌 그는 매일 『향락한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것인가 하고 『지혜』를 짜내기에 골몰하였다。

하루는 윤 기선이가 리 기철을 찾아 왔다。

—저 우리 일에 냄새를 맡는 것 같습디다

—뭘… 감쪽 같은 일에……

윤 기선은 리 기철의 이 말에 힘을 얻었다。

—부부장 동무! 저 강 남영에게 식량표를 얼마 더 주었습니다

—더?!

—네 장부의 숫자 하나 깔작거리는것 쯤이야 내 이 손에 달려 있거든요 어더 체면이 서야지요 이렇게 양복까지 얻어 입고서… 가는 정도 있어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하긴 그렇소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고… 핫 핫 하… 향락한 생활이란 『창조』해야지……

이렇게 그들은 강 남영을 둘러싸고 식량표를 문전상 통간하여 『호강』을 하였다。 그 결과는 강 남영은 『활기』를 띄였으며 그가 『활기』를 띌수록 두툼한 『사례금』이 리 기철에겐 련이여 들어 왔다。

그런데 리 기철의 이러한 『향락한 생활』이 흘러가는 동안에 아무리 그의 『위』가 튼튼하다 해도 10 여 톤의 국가 량곡을 그냥 『소화』할 수 없어 간이 붓고 식도가 헐어 끝내 『체』하고 말았다。

장필순

덮어 놓고『만세!』

최영근 그림

일부 건설장들에서는 건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서 연말전에 준공식을 해야 한다는 공명심에만 사로잡혀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준공식"부터 하며는 덮어놓고 『만세! 식』 경향이 있다

년말이 다가 오면서

—돈이란 써야만 생기는거야 원광수 그림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년간 예산이 남으면 명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된다고 하면서 년말이 다가 옴에따라 비경제적으로 자금을 랑비하고 있다

아 오 지 "곡 예"

열두번째 고개

—아이구 사람 죽겠다… 안창수 그림

아오지 탄광은 파동식 생산으로 일년 내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생산은 검먹은 자라목…

어쨌든 백푸로라고…

일부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인민 경제 계획 과제를 품종별로 완수하지 못하고서도 금액상으로만 달성하면 다 되듯이 웃줄하는 경향들이 있다

최한진 그림

『금고!』

직장장 리 우순 동무는 월동 대책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기사장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기사장 강 태준 동무는 안경 넘어로 직장장 동무를 힐끗 보고는

『아직 겨울이 멀었소 그런 문제는 그리 중하지 않소』하고 눈을 내려 뜬채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는 더 그런 말을 꺼내지 말라는듯 위엄성 있게 헛기침을 두어번 했다。 직장장 동무는 안타까웠다。 얼마후 그는

『기사장 동무! 멀지 않아 눈이 떨어질텐데… 지금과 같이 생산에만 급급하다보니 조금만 로력을 들이면 월동 대책을 할 수 있는데… 기와 한장 애끼다가 대들보를 썩인 것처럼… 그 적은 로력이 아까워 등한히 하다가 동기간 작업에 지장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하고 다시금 진지하게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말을 꺼냈다。

『에… 거 무슨 소리요? —기와 한장 애끼다가 대들보를 썩인 것처럼—이라니 그래 우리 사업소에 그런 기와집이 어데 있단 말이요?』

기사장 동무는 4.4분기 계획을 달성할 데 대한 생각만 하다 보니 직장장 동무가 귀아프게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 말은 귀 밖으로 들었으나—기왓장 하나를 애끼다가 대들보를 썩인 것처럼—이란 말은 몹시 신경을 거슬렸던 것이다。

사실 그의 주위에는 "기와집"이라곤 없었다。 기사장 강 태준 동무가 지도하는 건설 사업소의 간판이 붙은 직장 건물들과 로동자들의 주택이며 합숙이며 식당이며 모다 설계도에는 기와를 예기로 되였으나 기와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결국은 "짚"을 예고 말았다。 또 여름 장마때 시공한 건물들이 무너지고 기초를 잘 못 쌓아서 내려 앉은 것은 더러 있으나 대들보가 썩은 건물은 하나도 없다。

『여보 동무! 말을 삼가우』

기사장 동무는 얼굴이 푸르락 붉으락……

『네?』

직장장 동무는 기사장 동무가 성내는 바람에 이렇게 반문했다。

『말을 그렇게 해서는 옳지 않소 없는걸 일부러 꾸며서는 못쓰오』

기사장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책상을 땅…

『기사장 동무! 빨리 월동 대책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전재 생산부에서 방풍 및 방한 장치는 고사하고 장마때 무너진 벽과 날라간 이엉이 그냥 있어 밤이면 별이 총총합니다 가공 직장도 그렇습니다…… 공장 건물 직장에는 미끼샤 권양기 설치 장소며 모다 방풍 공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있다간 동기간에 일을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무는 점점 엄중한 말만 하는군… 왜 동기간에 일을 못한단 말이우?』

기사장은 그냥 용수철 마냥 풀떡 풀떡……

『지난 장마때 일을 잊었습니까? 비가 쏟아지니 손을 들고 나 앉아 하늘만 쳐다보던 일을… 그 바람에 날림식으로 지은 집이 130동이나 비가 새고 바람에 떠러는 쓸어지지 않었습니까……』

『그말은 왜 또 새삼스럽게……』

『기사장 동무는 그래도 월동 대책을 꿈밖에 여기고 "생산 생산","돌격 돌격" 적은 로력을 애끼다가 —기와 한장 애끼다가 대들보를 썩인— 격인 지난 우기 때와 같이…』

『알았소 동무가 한 말을… 인제야 알았소 그렇게 똑똑히 말해야지…』

『아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산에 대한 생각만 골똘히 하다보니 아까는 동무 말을 미처 못 알아 들었소…… 그런데 지난 여름 일을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우 그 말은 아예 입밖에 꺼내지 마우』

『기사장 동무! 입을 "봉"하는건 간단하지만… 이대로 그냥 있으면 "동기간 사업이 중단"되는 엄중한 사실이 "말"하는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업소의 "금고"입니다』

『금고! 허허…』 기사장 강 태준 동무는 멍하니 서서 중얼거리며 머리를 붙잡는다。

류 달

하나만 아는 사람들

—놀리지 않도록 로력을 조직하는게 원칙이야

—요업 공장의 공정은 간단한 데다가 더구나 우리 트레스트 로동자들이 가서 할 일이란 요출 뿐인데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어도 로력은 남아 돌거든

—이사람이 걱정도 팔자네……

이렇게 로동자들을 다른 부문으로 뗐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건설성 산하 9트레스트 지도 일군들의 일이였다。

그러니 자재 확보차로 요업 공장에 동원된 9트레스트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로력을 옳게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데서 로력에 대한 평가도 흐지 부지할 것이라고 불만해 할 수 밖에……

× × ×

—경각성은 언제나 높여야 해 그러자면 경비에 많은 사람을 돌려야 하거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경비에 동원되였는데 뭘 그래

—원 천만에 매사는 튼튼히 해야 해……

9트레스트 지도 일꾼들은 경각성을 높여 하는 말인데

—여보게 경비도 중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여 로력이 랑비되는걸 생각하면 기가 막혀……하고 경비를 선 로동자들은 말 한다。

그러니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많은 로동자들을 배치한 데서 경비 상태는 더욱 해이하여 질뿐……

× × ×

9트레스트 사무실에선 여전히 지도 일군들이 로력 조직에 『바쁘』다。

—자재 운수의 상하차 작업과 자재 정리 작업에 로력을 여유 있게 배치해야 하며 특히 경비에는 경각성을 높여 사람을 더 많이 돌려야겠다고……

이와 같은 주먹치기 로력 조직으로 말미암아 건설성 산하 9트레스트에서는 9개월 동안에 많은 로력을 랑비하였다。

장필순

인기 있는 조각물

지금 초 고중 졸업생들 중에서는 문화적인 농촌 건설을 위하여 원대한 희망과 결의를 다지며 계속 농촌에 진출하고 있다

안창수 그림

밤나무 그늘 밑에서

밤나무는 하늘 높이 뻗었다。 파란 잎이 담뿍 핀 밤나무는 여름철 햇발을 막아주어 시원해 좋았다。 정주군 신봉 농업 협동 조합 사무실은 이 밤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잡고 있다。 살랑살랑 바람에 나붓기는 밤나무 잎사귀들이 유리창에 그림자를 던지는 것도 보기 좋았거니와 그보다도 삼복 더위를 모르고 지내는 것은 더욱 좋았다。

위원장 홍 춘식 동무와 부기원 홍 경표 동무는 여름철에 땀을 뻘뻘 흘리며 밖에 나가 돌아 다니기보다는 사무실에 앉아 많이 일을 했다。

× × ×

지난 5월…… 확 트인 넓은 벌에는 모내기가 한창 벌어졌다。

『위원장 동무! 어제도 모를 뜬게 없어서 5작업반에서는 오후부터 모를 꽂지 못했습니다』 작업 반장 동무들의 말이다。

『하하…… 큰 변났군…… 그러니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 위원장 동무는 입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는 얼마 후 머리를 번쩍 들며

『원래 우리 조합은 규모가 커서 아무리 로력 조직을 잘해도 그렇단 말요 그러니 모뜨기니 써레질이니 모꽂기니 작업반들에서 잘 조직해 하는 것이 좋겠소』하고 가슴 답답히 막히였던 숨이라도 로하듯 휘— 내뿜는다。

위원장 동무의 얼굴에는 밤나무 잎이 그림자를 던져 아롱아롱 거리는데……

그 이튿날……

『위원장 동무! 써레와 소를 먼저 서로 쓰자고 하는 통에 일이 더 안됩니다 그리고 모두 닥치는대로 이일 저일 하게 되니 무질서해 일이 더 안됩니다 그리고 로력일 평가두……』 작업 반장 동무들은 모두 이렇게 제의했다。

『이렁궁 저렁궁 시비하다가 모내기 철이 다 지나가겠소』 위원장 동무의 볼 멘 말이다。

『그냥 합세다』 4작업반 진달균 리 치수 동무가 앞에 나서며 말했다。『어쨌든 빨리 내 몰아야겠소 로력일 사정은 지금까지 한 것을 기준해서 그날 일한걸 조절하면 될거 아니유 그리구 5일보나 제때 제출하우 나와 부기원 동무는 그것만 검토하자도 눈이 돌아가우』

한낮이 되면 햇볕은 그냥 쪼여 논판의 물은 열탕처럼 끓고 벼포기가 휘주구레 시들건만 그러나 밤나무 밑은 시원해 좋았다。 그 밑에서 관리 위원장과 부기원은 5일보를 검토한다。 그러다가 그들은 머리를 끈덕거리며 조름이 소로로…… 소리없이 부러 오는 바람이 그들을 대신해 5일보를 한장 두장 뒤적이는 데……

× × ×

모내기는 그럭저럭 끝났다。 중경 제초도 끝났다。 가을이 되여 모두 추수 사업에 나섰다。『위원장 동무! 물방아골 논판엔 물이 무릎팍까지 올라오고 그런가 하면 노루목 고개 아랫 논판엔 통버선을 신고 추수하는데 모두 일률적으로 사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4반 리 치수 동무와 같은 동무는 쉬운일만 하고도 로력일은 같습니다』 작업 반장들의 말이다。 조합원들도 한마디씩 말을 터트렸다。 제1반 김 덕표 농민은『난 지난 모내기때 그냥 천수답에만 모를 심느라고 갖은 고생을 했소 그러나 문문한 필치거나 교쟁이로 뚫어야 하는 딴딴한 필치거나를 똑같은 점량을 주니 경우가 됐소?』『난 중경 제초 때 김 맬라 관수 조절할라 천수답에 물을 퍼 올릴라 숱한 고생을 하구도 저 리 치수처럼 피만 살살 부리는 자와 로력 점수가 같단 말유』 7반 리 근한 농민도 얼굴을 붉혔다。

『하루 한시에 나온 손가락도 길고 짧은데……』 위원장은 입속으로 중얼거리였다。

『위원장 동무! 지난 모내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 모다 재 검토하고 시정합시다』 작업 반장들은 이렇게 제기했다。

『지금 조합에 일이 많은데 추경이며 토지 보호 복구며 자급 비료 생산이며 우량 종자 확보며 급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위원장은 말끝을 흐리우며 혼잣말처럼 말하였다。

『위원장 동무 문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일이 바쁘단걸 구실로 흐리멍텅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곤난합니다 조합원들의 광범한 토의 밑에 로력일을 모다 재검토하고 시정합시다』 작업 반장들은 강력히 말했다。

『좋소!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토의니 뭐니 할 것 없이 5일보에 다 근거가 있으니 그것을 잘 검토해 다시 시정합시다』 위원장은 얼마후 머리를 번쩍 들며 이렇게 말했다。

『5일보? 5일보는 그때 그때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

× × ×

넓은 들판에는 추수가 끝나 꼰꼰이 끝으머리가 일어선 볏그루들이 객토 작업과 추경을 기다린다。 관리 위원회 사무실을 덮던 밤나무 잎은 떨어지고 쌀쌀한 바람이 들과 마을을 핥으면서 휘몰아 친다。

그러나 사무실 안에는 때 아닌『여름』이 닥쳐 왔다。

『래일도 날이고 모래도 날이라고…… 일을 미리우기만 했더니…… 이런「봉변」을 당해 싸지…… 편안히 밤나무 밑에서 땀을 안흘렸는데……』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로력일 평가를 형식적으로 해 오다보니 지금에야『모내기』때부터의 5일보를 뒤적거리는 위원장과 부기원 동무는 어젯날을 후회하며 이마에 땀방울을 뚝뚝 떨군다。

가을 바람이 휘—ㄱ 불어 그들의 머리 우엔 밤송이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류 달

역시 배우는 것이 좋아

최영근 그림

무관심에 대한 유관심

최한진 그림

부분적인 국가 일군들 중에는 헌서류를 함부로 버리고 있는바 이러한 무관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각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을 했소?

김 동 희

남달리『총명』한 그는
쌓아 온『경험』도 많아……
모든 것을 훼허니
제 맘처럼 알 수가 있다

실무 서적은 보나 마나
문헌도 연구하나 마나
신문은 제목만 읽고도
—흥 그렇군 그야 그렇지!

상식도『풍부』한 그는 아는게 많아서
"쎄멘트"나 "강괴와 강재" 같은 책은
—나와는 인연이 먼『기술 서적』이고
"리론 서적"이 실속이 있지……

탁상 우엔 언제나 정연히
파랗고 두툼한 노트와 함께
첩첩한『선집』과『전집』으로
차려진『위신』은 빈틈 없는데……

그는 참『궁리』가 좋아서
—오늘은 사업 때문에
(아니면) 손님 때문에……
그다음 어쩌다가 책장을 번지면
—이런 신열이 나는구려……

늘상『일에 바쁜』그 대신에
아침 저녁 정돈하는
기요원의 손때가 올라
책마다 뚜껑은 품 있게 찌드렀는데……
노트장만 그 손마냥『깨끗』도 하다

그래도 회의마단 어김이 없이
그만이 아는『새로운 술어』로
『명철』하게 내리는 결론의 말씀
자기 위신 강화의 병풍을 치며……

—동무들은 학습을 않소 학습을……
그의 곧추 든『깨끗』한 손끝이
파랗고 두툼한 노트를 두다린다
—뻔하지 않소 백지마냥
텅빈 머리론 일이 되겠소?

그러니『총명』한 그가
더욱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곧추 든 그 손끝으로 한번만 더
번들한 그 머리를 두다렸으면……

—텅빈 머리론 일이 되겠소?
일년 동안 학습은 무엇을 했소?

탐조등

「예견성」

『사업은 「예견성」있게 해야 하우—』

대관 림산 작업소 소장 리 두홍 동무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그래 금년에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 뗏길을 닦지 않아도 뗏목이 잘 흐른다고 국가에서 준 900공수의 기본 건설 로력을 소발구 운재며, 벌목 부문에만 『예견성』있게 농땡 돌려서 생산 생산……

그러나 가을이 되자 물이 줄어드니 물 속에 잠겼던 바윗돌들이 꼭두머리를 내여 밀어 뗏목은 흐르기도 전에『예견성』있게 뗏길을 지키고 있으니 걱정…

「경제적 토대를 위해」

『위원장 동무! 우리 조합이 이 상태대로 그냥 나가선 안되겠습니다』 신의주 기계 생산 협동 조합 조 두련 동무는 조합원들이 이렇게 말하자 입에 거품을 물었다。

『동무들 우리 조합의「경제적 토대를 튼튼하게」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거 무슨 말이우? 그런 말은 아예 하지마오』

그리고는 국가 과제를 달성할 대신에 조합의『경제적 토대를 튼튼하게』하기 위하여 개인들의 산소 땜이나 기계 수리를 하고 또 모리 간상배들에게 공작 기계를 빌려 주고 임차료를 받기에 열중…

「좋은 궁리」

계속 배포되는 책이란 책 신문이란 신문은 오는 족족 궤안에 집어 넣는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열씬도 못하게 하는 성천군 향풍리 선전실장 안 성렬 동무는…… 책궤를 꽉 잠그고도 불안해 하는 것이였다。

—왜 책을 빌려 주지 않소?

하고 묻는 말에

—때가 묻고 어지럽게 될가봐……,

라고 그는 태연하게 대답하면서 보관 책임을 성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읽어 먹는걸 념려』하여 석달분이 넘는 각종 신문을 자기방 도배지로써 확고 부동하게『영구보관』하기에『노력』하였다。

「믿지 못할 계약」

온천 농기계 임경소에서는 9월 20일부터 룡강군 성암리 농장의 밀 파종 적지를 기경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성암리 농민들은 파종 준비를 끝내고 뜨락또르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9월 말이 가깝도록 뜨락또르는 오지 않았다。

—믿지 못할 사람들이로군 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습게 보는 모양이지……

올 봄에도 춘경 계약을 체결하고서 믿고만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한바 있는 성암리 농민들은 온천 농기계 임경소 일군들에게 "활살" 지상을 통하여 동지적인 충고를 주는 것……

눈이「핑핑」돌다 보니…

신의주 상업 관리소 소장은 어쨌든 계획만 달성하면 된다고 눈이 "핑 핑" 돌아가게『활약』……

하부 일군들이 재정 규률을 위반해도… 간상배를 국가 상업 일군으로 가장시켜 그들이 가지고 있는『물건』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는 비국가적 행위를 하여도… 눈이 "핑 핑" 돌게 활약하다 보니 눈 뜬 장님이 돼 좋소! 좋소! 좋소!

『과 동 준 비』

박승히 그림

—여보! 우리들 생각도 좀 해주시요

검덕 광산에서는 보온 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동기간에 작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적지않은 기계설비들이 있음에도 이에대한 대책을 굼뜨게 진행하고 있다

년간 계획 완수자들의 모범을 따르자!

자연을 정복하여!

안창수 그림

—새로 뻗은 수로에 새 봄이 오면
생명수가 흐른다!

지금 각 농촌들에서는 명년도 알곡 증산의 중요 담보로되는 동시에 금후 농촌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방대한 관개 하천 건설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년간 계획을 이미 초과 완수한 로력 혁신자들은 나날이 자기들의 대렬을 확대하며 계속 억센 로력투쟁을 전개하여 빛나는 생산 성과를 높이고 있다

한사람 안 나온건 또 누군가?

리영춘 그림

일부 농민들 가운데는 겨울이되면 집안에 들어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던 재래의 옳지못한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관료주의 고리짝

송룡남 그림

리능영

상인천 율목동 4가 좁은 골목길을 접어 들어서면 초겨울 해풍에 떨고 있는 뼈만 앙상한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눈에 띄운다.

하늘은 먹칠한듯 캄캄하건만 은행나무 뒤에 자리 잡은 박 홍제의 집에서는 희밋한 불빛이 흘러 나왔다.

가끔 깔깔대는 녀자의 호들갑스러운 웃음소리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대머리에 기름끼 도는 박 홍제는 털부시 좋아리를 벅벅 긁으며 희죽벌죽하고 있다. 그의 말소리는 굵으나 퍽 다급하다.

«춘심이! 기뻐하오 오늘 부라이트 령감님을 만났드랬소 어제 그분은 비로드, 하부다이, 보라천을 잔득 싣고 입항하였소 "고급" 유·에스·에이 렛델이 달린 것들이지 그것두 싼값으로 준대 그리구 우리한테만 넘긴다니 땅집구 헤염치기지…»

홍제의 첩 춘심이는 그만 몸가질 바를 모르고 기뻐하 였다.

«아이구머니 내 꿈이 신통히두 맞었어요 이번엔 보석반지 하나 더 사줘야 해요 네»

«반지 뿐이겠소 물건은 "하구라이"겠다 싼값으루 독차지 했겠다… 정말이지 미국 사람의 "선심"은 하느님이나 헤아릴른지… 내가 그분들을 사귄지도 10년… 참 세월도 빠르군, 그런데 여보! 이번엔 꼭 그분께 버젓한 선물을 하나 해야겠소»

홍제는 다름아닌 "녀인상 골동품"을 두고 하는 말이였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는 오늘 일이 선하게 떠올랐다.

—계약이 끝나자 조선 호텔 식당에서 술상을 차려 놓고 마주 앉었드랬지… 그분은 은빛 수염을 연신 쓰다듬으며 여송연을 뻑뻑 빨며 "주인"다운 위엄성 있는 어조로 말하셨지『당신의 미국 사람에 대한 감정은 아주 훌륭하오』그리고 나같은 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겐 많이 많이 소용된다 하셨지… 난 그때 어찌나 황송하였던지 그만 하마트라면 위쓰끼 술잔을 넘어 뜨릴뻔 했다니… 좀 섭섭하였지만 그분은 나를 칭찬만 한 것은 아니야… 내가 상당한 "문명인"이지만도 미국 귀빈을 대할 때 아릿다운 딸을 동반할 줄 모르는 점에서 아직 채 깨지 못했다고 나므랬겠다‥ "미국식 생활"을 다 알아내긴 퍽 힘들단 말이야… 허나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였단 말이야… 내가 오늘에야 그분의 "고상한 취미"를 알아냈거던… 그분이 조선 "녀인상 골동품"을 소망하시기에 내야 뭘 생각할거 없이 구해 드리겠노라고 단단히 맹서했지… 그분은 이런 것으로 자기를 "대접"한다면 "선량"한 자비심이 한결 두터워진다 말슴하셨지… 그럴듯한 분이지만 비위를 맞추긴 여간 힘들지 않어—

여기까지 회상한 박 홍제는 이런 이야기를 누구와 나누고 싶은 충동에 못이겨 춘심에게 떠듬 떠듬 모든 것을 죄다 말했다.

다소곳이 듣고 있던 춘심이는 머리를 갸우적 거리면서 말했다.

«그럼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많다구… 우리가 누구 덕에 산다구 골동품쯤 아끼겠어요…»

기분 좋은 김에 홍제는 허리를 구부장하고 손으로 침대 밑을 휘더듬더니 트렁크를 끄집어 냈다. 춘심의 시선이 지남침처럼 그리로 쏠렸다. 트렁크 속에서 홍제가 새까만 비로드천을 꺼내들자 예기나 한듯 춘심이가 덥석 잡아챘다.

«아이 당신은 벌써 사왔군요 무늬가 참 내게 어울려요» 춘심이는 천을 끌어 당겨 허리에 대보고 다리에 감 아보며 온갖 수다를 떤다.

홍제는 난처한듯 씨물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보! 이건 안쪼요 이건 부라이트 령감님께서 손수 춘실에게 선사한거라우… 헷 참 이럴줄 알았드라면 당신 것도 한목 떼울걸…»

춘심의 얼굴이 금시에 새파랗게 질려서 천을 홱 마루바닥에 내여 동댕이 쳤다. 선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보다 바로 춘실의 것이라는 데 더욱 아니꼬왔던 것이다.

«별 꼴을 다 보겠네!»

그래도 믿을 수 없다는듯 춘심이는 다시 남편에게로 얼굴을 돌려 아양을 떨었다.

«여보! 당신이 춘심이를 춘실이로 잘못 알지 않았어요 영어 발음은 비슷하니까요… 아예 내 이름이 그애 이름과 비슷해서 딱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야요 그러길래 내가 뭐라구 했어요 내 이름을 미국식으로 고치자구 하지 안했어요…»

홍제는 춘심의 뒷잔등에 가벼히 손을 얹고 달래였다.

«춘심이 뭘 그까짓걸 가지고 그러우 당신에겐 더 좋은걸 내가 선물할텐데…»

그제야 춘심이는 제자리에 앉으면서 입을 삐쭉거리며 말했다.

«아무렴요, ‥ 아—니 그 령감님도 선사할바엔 좀 좋은걸루 할거지 이건 춘실에겐 맞어도 내겐 색갈이 통 어울리지 않아요 전 람색을 좋아 하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춘심의 마음은 종시 내끼지 않았고 홍제의 전처 딸 춘실에게 대한 평소의 증오감과 질투심을 참을 수 없어서 숨만 씩씩거리고 있었다.

한편 홍제는 홍제대로 요 며칠사이를 잘 타개해 나아갈 궁리에 골몰하였다.

실은 그 이튿날부터 홍제는 상품을 팔기 위해 집에도 번번히 오지 않은채 인천, 영등포, 서울 등지를 불이나게 싸 다녔다. 며칠이 지나갔다.

온 종일 홍제를 기다리기에 지쳤던 춘심은 홍제가 집에 들어서자 너무 기뻐서 달려나가며 일이 어찌되였느냐고 다우쳐 물었다.

그러나 홍제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침대에 쿵하고 나둥굴어졌다. 그제야 녹초가 되도록 술에 취했다는 것을 안 춘심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여보! 대관절 말이나 좀 시원히 하구려» 하고 춘심은 발을 동동 굴었다.

홍제는 그제야 제 정신이 든듯 춘심이를 멍하니 쳐다 보더니 궁궁거리며 말했다.

«다 틀렸어 어느 상회에서두 받질 않겠대… 그런 물건이 온 시내에 꽉 들어 찼걸»

«아니! 우리에게만 넘겨 준다더니…»

홍제는 어이 없다는 듯이 입맛을 다시며 대답했다.

«숨 막힐 일이요 그분은 내게만 준다더니 왼통 숱한 사람에게 넘져 주었더란 말이요… 이렇게 되고 보니 물건을 내가 엄청나게 비싸게 산 것으로 되였단 말이요»

춘심이는 풀이 죽어 낮윽히 물었다.

«당신은 딸라도 못 구했구만요?»

«그것도 다 틀린가보우 계약에 상품 대금은 딸라로 물게 되였는데 말이요… 그래 요 며칠동안 서울 장안을 다 돌아 다녔드랬소 어제는 "마왕 레스트랑"에서 있은 딸라 경매에도 갔었어‥ 예상과는 영판 달리 환률이 800—900으로, 오늘 아침에는 1,000까지 하였다오… 영 말이 아니요 생각해 보면 부라이트 령감님은 장사엔 날고 뛰거던… 그분은 계약할 때. 모주리 타산했더란 말이야 이건 죄송한 말이나 내가 가는곳마다에서… 딸라 경매장에나, 그밖에 어데에도 그분의 그림자가 보이더란 말이요…»

«그분이 누구라구… 당신은 미국 사람의 먹은 나마지 찌꺼기나 주으면서…»

홍제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쉿! 말을 조심하오 그분에게 이렇구 저렇구 운운해선 못쓴단 말이요 지금은 그분의 "자비심"을 바래야 할거요»

«무슨 "자비심"을요?»

«내 생각엔 그분이 지불 기일을 연기해 주던가 아니면 대금을 환으로라도 받아 주신다면 살아날 것만 같소…»

춘심이는 이말에 기운을 내며 말했다.

«그럼 어서 그분을 만나봐요! 정말이지 그분이 우리의 곤난을 모른다고 하시진 않을거야요»

그러나 홍제는 머리를 떨면서 풀 없이 말했다.

«허긴 가면 될른지도 모르지… 내가 영 망하는 것이 그분에게도 그다지 리로울건 없을테니…그러나 여보! 당신도 아다싶이 골동품도 선사 못하면서 빈손에 어찌 갈 수 있단 말이요?» 춘심이는 이때를 노칠세라 "쿨"담배 연기를 후 내뿜으며 일어섰다.

«좋아요! 그럼 제가 가겠어요»

한편 놀랍고 한편 반가운 홍제는 살길이나 찾은듯이 춘심의 손목을 덥썩 잡자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렇기 내 마누라라지 어서 가보구려 그러나 여보! 골동품을 찾으면 어쩐담?»

춘심이는 가늘게 실눈을 지으며 생죽 웃어보였다.

«당신은 공연한 걱정을 해요 그렇다간 머리가 희겠어요 당신은 눈치 코치가 없어요 그분이 왜 "녀인상 골동품"을 구하셨고 왜 춘실이에게 선물했는지 아직 모르시겠어요?…»

«그야 그분의 성품이 워낙 "고상"해서 그런거지 뭐야»

그러나 춘심이는 앙큼하게 빈정댔다.

«에구머니 그분에게 무슨"그림떡"이나 "철그릇"이 소용되겠어요 그분이 우릴 정말 살려 주겠는지는 몰라두 미쩌야 본전… 어쨌든 급한 때 살길을 찾기에 힘써 보아야 해요…»

그리고 남편의 귀에 입을 대고 소군거리는 것이였다.

«"산 골동품"이 소망되지요!»

홍제는 모두었던 숨을 길게 내 쉬며 량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벌떡 일어나더니 휘청 휘청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알겠다! 나도 바이 생각지 못한 것은 아니야어서 "산 골동품"을— 춘실이를… 선사해라… 살길을 찾어»

«살길을 찾어…»

홍제의 울부짖음은 뫼아리칠따름 밖에서 초겨울 해풍이 우짖는 캄캄한 밤은 밝아오지 않았다.

최한진 삽화 (응모 작품 중에서)

략탈에 또 략탈

방 법 이 란 …

곧 이런 것이다 리영춘 그림

리승만 괴뢰 도당은 전쟁 준비에 따르는 군량미 및 경찰미의 충당을 위하여 토지 수득세 토지 상환곡 등 각종 명목으로 량곡을 거두어들여도 355만석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농민들로부터 또 155만석의 막대한 식량을 강제 수탈하고 있다

4렬강 수뇌자 회의를 전후하여 국제 긴장상태가 더욱 완화됨에 따라 아세아와 원동에 대한 군사 정치 경제적 흉모를 강화하면서 남조선을 그의 침략 뿔럭의 일환으로서 리용하기위해 키포버, 밴플리트, 국무차관 후버등 미국 고관들이 꼬리를 물고 서울에 밀려들고 있다

—리승만 아직도 정열이 부족하오 박승히 그림

반공산주의자들의 불가피한 결과

리영춘 그림

평화의 원쑤들이 반공을 부르짖으며 발광하면 할 수록 그들은 평화를 념원하는 선량한 인민들로부터 고립되여 가고 있으며 그것은 곧 그들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걷는 것으로 된다.

침략자의 배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로 미국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미국인의 심정을 알라』고 울부짖은 리 승만의 공보실장 갈 홍기의 심정도 알만 하지만 그 『미국인의 심정』도 당해 본 사람이면 모를리 없다.

『원조』라는 미끼로써 되도록 많은 리윤을 긁어 가고 싶은 것이 『미국인의 심정』이라면 주인을 잘 살게 해 주어야 찌꺼기라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괴뢰들의 심정이다.

미국이 하는 것이란 모두다 그러한 것이지만 지금 남조선의 석탄 산업이 파괴된 데 대하여 흥미를 붙인 략탈자들은 리 승만이를 통해서 남조선에 석탄을 팔아 먹음으로써 많은 리윤을 짜내고 있다.

그러니 남조선에 미국 석탄을 엄청난 고가로 팔게끔 한 놈은 리 승만이요. 미국 사람들의 리윤을 위하여 엄청난 댓가를 강요 당한 것은 남조선 인민들이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미국이 남조선에 돌리고 있는 『가는 정』에는 귀가 막히게 『오는 정』을 노리고 있다. 그것은 『원조』한다는 구실 밑에 보내는 포장용 자재로써 남조선의 많은 물자를 싸가고 있으니 그들의 『가는 정』에는 "데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인 『오는 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하기야 포장을 잘 해서 가져가면 남 보기에 도적질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테니 이거 역시 『미국 신사식』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밖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본받게 하기 위해선 우선 화장품이며 사치품이 필요하리라는 『배려』에 의하여 남조선에 주는 미국의 『원조품』중에는 화장품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 화장품 덕분에 늙은 애리스가 더욱 요사스럽게 보임으로써 "미국 친우"들의 환심을 사는데는 도움이 되였겠지만 그러나 미국제 화장품으로도 굶주리고 헐벗은 남조선 인민들의 참상을 미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승히 그림

빰 맞은 보초병

남궁만

쏴하고 월미도 쪽에서 거치른 바람이 해변을 핥으며 불어 스친다. 꽤 맵짜운 날씨다. 보초막 앞에서 초년병 최 창수는 으시시 떨리는 것을 가깟으로 참으며 총 가목을 다잡어 잡고 자못 긴장된 자세를 취하기에 노력하였다.

이맘때면 으례 헌병놈이 순찰을 도는 시간이다. 몸 자세가 틀렸다느니, 긴장력이 모자란다느니, 보초병의 임무를 모른다느니 하고 구변 좋은 헌병놈들의 그 야단을 당할 생각을 하면 창수는 저절로 자세를 바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ㅡ보초병은 껌정 강아지 한마리 얼씬 못하도록 눈을 딱 바로 떠야 한다ㅡ

이것이 대대장이 언제나 판에 박은 듯이 뇌까리는 어투다.

그래 창수는 짐짓 껌정 강아지 한마리 얼씬 못하도록 눈을 딱 바로 뜨기에 골몰하였다. 그러나 바람은 사나워만 갔다.

파도가 뜨설레이고 판자집 담벽은 날라리를 붙고 생철 지붕은 아우성을 친다. 바람은 이 가련한 보초병의 등곬을 사정없이 후벼 도려서는 부르르 떨게 하고 목을 자라목처럼 움츠려 들게 하였다. 바로 이때였다.

마까오 오바에 여우 목도리를 두르고 악어 핸드빽을 휘두루면서 첫 눈에도 요염스러워 보이는 젊은 녀자가 정문 앞에 나타났다. 그 녀자는 보초병의 존재쯤은 안하에 없는듯 기세 있게 병영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누구야? 섯!』

창수는 기급을 해서 소리를 지르며 여우 목도리 앞을 가로 막았다.

『대대장 부인을 몰라?』

여우 목도리는 보초병을 밀어 버리고 넌즈시 들어갈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안됩니다』

창수는 안까님을 쓰면서 대여들었다.

『뭐가 어째? 이놈이 누구를 모욕하는거야?』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여우 목도리의 손길은 찰삭하고 창수의 뺨을 후려 갈겼다.

『아이쿠』

소리를 지르며 창수가 물러 났을 때는 여우 목도리는 보초병의 총을 빼앗아서 휘ㅡㄱ 던져 버리고 그리고는 기세 있게 병영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창수는 그만 털석 주저 앉으며 엉엉 소리내여 울었다.

언 뺨이 터지도록 호되게 맞은 것이 아퍼서도 울었지만 제깐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느라고 했는데 아니꼬운 계집에게 봉변을 당한게 분해서 나오는 울음이기도 하였다. 그 보다도 창수는 병영 생활이 서러웠다.

『국군』에 강제로 끌려 나온지 이제 얼마되지 않는 어린 창수는 놈들의 채찍 밑에서 신음하는 처경을 통분히 여기였다. 그는 상관놈들의 거드럭거리는 꼬락서니는 참아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앉으면 앉았다고 욕지거리요, 서면 섰다고 욕지거리라.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 어린 창수는 울분만이 가슴에 북받쳐 올랐다.

엎친데 덮친다고 이 초년병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순찰 돌던 헌병놈이 나타난 것이였다.

헌병은 창수를 발견하자 무슨 큰 사건이나 붙잡은 것같이 허접 지접 땅에 떨어진 총을 집어 들더니 대뜸 총타으로 창수의 등어리를 사정없이 내려 갈겼다.

창수는 눈물을 거두었다. 등을 쪼개는 것같은 매를 참으며 창수는 자초 지종을 보고하였다. 그 오만한 계집에게 복수라도 하는 것같은 심정으로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헌병놈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총을 버리는 놈에게는 총을 줄 수 없다』

하고는 총을 거두어 가지고 가버리고 말았다.

창수는 주먹을 부르쥐였다. 몸은 떨리였다. 추워서가 아니였다. 격분에 들끓는 심장이 온 몸을 떨리게 하였다. 창수는 입술이 으스러져라고 힘껏 깨물었다.

× × ×

『아이 분해!』

여우 목도리는 쏘파에 나자빠지듯 걸쳐 앉으며 암상을 떨었다.

『정실루 넣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갈라져야겠어요』

붉은 입술이 여우 주둥이처럼 도구라졌다.

『뭐가 엇쨋다구 아침부터 바가지를 긁는게야?』

대대장은 개기름이 흐르는 얼굴을 히번죽거리며 쏘파로 갔다.

『보초놈이 들어두 오지 못하게 하니 그놈들까지 날 첩노릇이나 하는 계집이라구 수모하는게 아니면 뭐예요』

『어떤놈이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야?』

『보초병놈이지 어떤 놈이예요?』

계집은 자못 분한듯 여우 목도리를 내동댕이쳤다.

『그 놈을 당장 불러야겠군!』

대대장은 대번에 노기가 동동하여 보초병을 잡아오게 하였다.

창수는 대대장 앞에 끌려왔다.

계집은 무서운 눈초리로 창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테ㅡ블 우에 나가 떨어진 여우 목도리도 창수를 잡어 삼킬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창수는 저도 모르게 움츠려 들었다.

『그래 상관의 령부인두 몰라본단 말이야?』

대대장의 유들진 호령은 방안을 흔들었다.

『그렇지만 대대장 어른께서는 껌정개 한마리 얼씬 못하게 해야 한다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창수는 떨리는 소리로 간신히 대답하였다. 그러자 계집은 발딱 일어섰다.

『뭐가 엇째? 그럼 내가 껌정개란 말이냐?』

계집은 잡어 먹을 듯이 창수에게 대여 들었다.

『아이 분해! 그래 이런놈을 그냥 둔단 말이예요?』

계집은 주먹으로 제 가슴을 두드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당신은 좀 가만 있소』

대대장은 경망한 계집의 꼴이 좀 민망스러웠던지 계집을 물리며 위신을 가다듬는듯 가래섞인 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는

『그래 총은 어떻게 했니?』 하고는 호령을 내렸다.

『총은 헌병 어른께서 가지고 갔습니다』

『뭐가 어째? 생명과 같은 무기를 남에게 빼앗기는 놈은 영창이다』

대대장은 지금까지 위신을 채리노라고 틀을 채리든 것도 잊어 버리고 고래 고래 소리를 질러서는 보초장을 불렀다.

『이놈을 영창에 넣어라』

『넷!』

보초장은 창수를 잡어 끌었다. 창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당장 끌어냈!』

하는 대대장의 벼락같은 호령 앞에서 창수는 반항하였으나 그대로 끌며 나가고 말았다. 밖에서는 인천 시가를 휘몰아치는 바람소리가 더욱 을시냥 스러웠다.

최영근 삽화

쪽집개 소식

『훈장』 대상자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도시마다에는 일명 『어깨』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공인 테로단』들이 백주 대로를 활보하고 있다.

그들은 대개 『국군』 정보국과 헌병 및 경찰 뿐만 아니라 미군읶 『씨•아이•씨』와 『쌤•피』들이 절대 보증하는 각종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깨를 으쓱 추겨 올리고서 당당히 행세를 한다. 이러한 테로단들이 전번에는 『증명서』 발급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테로 계획 실행의 하나로서 "대구 매일 신문사"를 백주에 습격 파괴하는 만행을 했다. 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는 리 승만 직계의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최 창섭을 단장으로 하는 『대매 테로 사건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조사 보고를 한 최 창섭은 『……열정에 불타서 테로한 청년들의 가슴에 훈장이라도 달아 주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테로단들을 『훈장』 대상자로서 찬양했다.

그러니 사실은 뻔하지 않는가! 리 승만의 『자유당』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자유로히 유린하는 『테로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리승만 도당들의 『자유세계』를 유지해 보려는 것이……

인정 안할 수 없는 사실

남조선에는 듣기에도 어마어마한 『월간』이며 『기간』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병역 기피자 단속 월간』 『도망병 체포 기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군 당국』에서 『도만 병사 자수 기간』이라 하여 『병』자 밑에 『사』자를 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수』라는 부드럽기 그지없는 『술어』까지 붙은 아주 색다른 『기간』을 설정했다. 그리고는 『전시나 평상시에 도주한 병사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한 암흑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가소로운 『경고』를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일종의 회유 전술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한가지 엄연한 사실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남조선 청년들이 『영원한 암흑』을 벗어나기 위하여 『영원한 죽음』의 길인 미제 대포밥되기를 원치 않고 있으며 또 『자수』한다는 것은 곧바루 암흑과 죽음을 향하여 내닫는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일』

서울에는 『미국식 생활 양식』을 본받아 『사교의 자유』와 『향락의 자유』에 커다란 『흥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흥미』 있는 『자유』만이 진실한 『녀성의 권리』인 것처럼 뽐내는 『고관』 부인들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흥미』 있는 생활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흥미』 없는 일이 폭로되였다. 그것은 녀성 롱락으로 이름난 박 인수란 자가 최근에 『사기 횡령죄』에 걸렸는데 그는 자기를 취조하는 서울 고등 검찰소 유 검사에게 서슴치 않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취조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흥미」도 없는 어리석은 일이요 나에게는 다른 죄는 없고 다만 내가 「관계」한 많은 고관 부인들이 있는데 아마 그들이 당신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오』라고…

ㅡ최근의 남조선 소식에서ㅡ 승 화

소요

"인민 조선" "활살" 문예 작품 현상 모집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8.15 해방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본사에서는 독자 및 열성 필자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해방 후 10년간 근로 인민들 속에서 장성된 문예 창작 성과들 총화하며 그들을 잡지 편집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예 작품 현상 모집을 실시한다.

1. 작품의 주제

(1)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한 조선의 해방과 조•쏘 인민간의 형제적 친선.

(2)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

(3)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하에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는 조선 인민의 투쟁.

특히 해방 후 10년간의 인민 경제의 발전 면모와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한 창조적 투쟁 모습과 날로 향상되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

(4)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발휘한 영용한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 및 빨찌산들과 후방 인민들의 애국주의적 투쟁.

(5) 조국 보위를 위하여 방선에서 높은 경각성 밑에 전투 정치 훈련에 정진하고 있는 인민 군대의 군무 생활 모습.

(6) 인민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더욱 제고하며 고상한 도덕적 품성의 배양 및 반탐오, 반랑비, 반관료주의와 반간첩 투쟁.

(7)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조선 인민의 시종 일관한 투쟁모습.

(8) 조선 력사에서 애국적 위훈을 세운 우리 선렬들의 투쟁 모습.

(9)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 및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 (각 분야에 걸친 물질적 기술적 원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10)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반인민적, 죄악성과 몰락성을 폭로 규탄하며 남반부 인민들의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모습을 주제로 한 것.

(11)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들과 고귀한 문화 유물들을 형상화한 작품.

2. 모집 종별

(1) 문학 작품

ㄱ. 단시 (풍자시)

ㄴ. 단편 소설 (풍자 소설)

ㄷ. 오체르크

ㄹ. 력사 이야기 (전설, 속담, 리언, 기담, 우화 등을 포함)

ㅁ. 펠레돈 (만문 포함)

(2) 미술 작품

ㄱ. 조선화, 유화, 수채화 (20호 내외)

미국 독점체들은 그들의 경제봉쇄가 쏘련 및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저애하게 될 것이라고 어리석게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심한 고통과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은것은 서방국가 자신들이다

잠진광 그림

믿음직한 비행사로 교체되였다

20세기에는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
스위츠의 보고에서)

은 무겁고나…

북대서양 뿔럭(북대서양 동맹기구)국가들의 직접적인 군사비의 총액은 1949년에 185억딸라이던것이 1953년에는 650억딸라로 증가 되였다 이와같은 조치들은 공황을 구원하지못하며 공황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있다

뺨 맞

쏴하고 월미도 쪽에서 거치른 ㅂ
날씨다。보초막 앞에서 초년병 최
가목을 다잡어 잡고 자못 긴장된
이맘때면 으레 헌병놈이 순찰을
이 모자란다느니, 보초병의 임무를
을 당할 생각을 하면 창수는 저절
—보초병은 껑정 강아지 한마리
이것이 대대장이 언제나 판에 ㅂ
그래 창수는 짐짓 껑정 강아지
하였다。그러나 바람은 사나워만
파도가 뜨설레이고 판자집 담벽
바람은 이 가련한 보초병의 등골
자라목처럼 움츠러 들게 하였다。
마까오 오바에 여우 목도리를 두르고
스러워 보이는 젊은 녀자가 정문 앞에
안하에 없는듯 기세 있게 병영 안으로 들
『누구야? 섯!』
창수는 기급을 해서 소리를 지르며 여
『대대장 부인을 몰라?』
여우 목도리는 보초병을 밀어 버리고 넌
『그렇지만 안됩니다』
창수는 안까님을 쓰면서 대여들었다。
『뭐가 어째? 이놈이 누구를 모욕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여우 목도리의
『아이쿠』
소리를 지르며 창수가 물러 났을
휘—ㄱ 던져 버리고 그리고는 기세
창수는 그만 털석 주저 앉으며
언 뺨이 터지도록 호되게 맞은
수행하느라고 했는데 아니꼬운 계
도 하였다。그 보다도 창수는 병영
『국군』에 강제로 끌려 나온지 이
서 신음하는 처경을 통분히 여기엇
참아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앉으면 앉았다고 욕지거리요, 서
을 추어야 할지 몰랐다。그래 어련
엎친데 덮친다고 이 초년병의 불
던 헌병놈이 나타난 것이였다。
헌병은 창수를 발견하자 무슨 큰
진 총을 집어 들더니 대뜸 총라으
창수는 눈물을 거두었다。 동을
보고하였다。 그 오만한 계집에게
다。 그러나 헌병놈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총을 버리는 놈에
하고는 총을 거두어 가지고 가버리고
창수는 주먹을 부르쥐였다。 몸은 떨리
는 심장이 온 몸을 떨리게 하였다。창수는

×

『아이 분해!』
여우 목도리는 쏘파에 나자빠지듯 걸쳐
『정실루 넣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갈라져
붉은 입술이 여우 주둥이처럼 도구라졌다。
『뭐가 엇쨋다구 아침부터 바가지를 긁는게야
대대장은 개기름이 흐르는 얼굴을 히번죽거리
『보초놈이 들어두 오지 못하게 하니 그놈들ㄲ
구 수모하는게 아니면 뭐예요』
『어떤놈이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
『보초병놈이지 어떤 놈이예요?
계집은 자못 분한듯 여우 목도리
『그 놈을 당장 불러야겠군!』
대대장은 대번에 노기가 동동하여
창수는 대대장 앞에 끌려왔다。
계집은 무서운 눈초리로 창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테—블 우에 나가 떨어진 여우 목도리도 창수를 잡어 삼킬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창수는 저도 모르게 움츠러 들었다。
『그래 상관의 령부인두 몰라본단 말이야?』
대대장의 유둘진 호령은 방안을 흔들었다。

ㄴ. 스켓취
ㄷ. 정치 만화
ㄹ. 련속 만화
ㅁ. 유모어 만화 (사회 생활에서 취재한 교육적 유모어)

(3) 사진 작품—예술 사진

3. 모집 기간

1955년 7월 15일부터 1955년 11월 15일까지

4. 모집 절차

(1) 응모 자격 응모 자격에 제한이 없음.

(2) 작품 제출 방법

응모 작품은 직접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되 응모자의 성명, 직업, 직위, 년령, 성별, 주소를 명기할 것.

응모 작품중 단시, 단편 소설, 오체르크, 력사 이야기, 조선화, 유화, 수채화, 스켓취, 예술 사진 등은 인민 조선사 내 현상 문예 작품 심사 위원회에 제출하며 풍자시, 풍자 소설, 펠레똔, 만문, 정치 만화, 련속 만화, 련속화, 유모어 등은 활살사 내 현상 문예 작품 심사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심사 발표

인민 조선, 활살 현상 문예 작품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955년 12월 하순에 신문, 방송을 통하여 발표한다.

입상 작품에 대하여는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며 인민 조선, 활살 지상에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동외 가작을 선출하여 인민 조선, 활살 지상에 게재할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한다.

응모 작품을 보낼 때 겉봉에 현상 응모 작품 이라고 반드시 기입할 것.

응모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시 상

1등 6,000원~20,000원
2등 4,000원~15,000원
3등 2,000원~10,000원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전화—평양 387번)
인 민 조 선 사
평양시 서구역 평화동 (전화—서평양 580번)
활 살 사

간』이며 『기간』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병역 기피자 단속 월간』 『도망병 체포 기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군 당국』에서 『도망병사 자수 기간』이라 하여 『병』자 밑에 『사』자를 달

요 나에게는 다른 죄는 없고 다만 내가 「관계」한 많은 고관 부인들이 있는데 아마 그들이 당신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오』라고…

—최근의 남조선 소식에서— 승 화

소요

한계홍

벼랑에 던진 닭알이 산산 조박이 난다해서 삼척 동자 도 의심을 품지는 않는다。그러나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그것도 삼척 동자 아닌 기골이 장대하고 오젓하게 모닝코트를 입은 신사이거나 또는 경험 있는 장군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그들은 벼랑에 던진 닭알이 깨진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깨진 닭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오늘 4렬강 외상들이 모인 제네바에 보통 사람들의 시선은 집중되고 있다。바로 그곳에서 인류의 평화가 약속되여야 하며 그 길을 다짐해야 하기 때문이다。얼마 전 4렬강 수뇌자들은 외상들에게 주는 지시문을 일치하게 채택하였다。그때 보통 사람들은 『제네바의 정신』에 들끓는 박수를 보냈고 만족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 엄연한 현실에 눈을 감는 자들을 본다。워싱톤 한 복판에선 저명한 외교관,장군,상원 의원들 중에서 파산된 『힘의 정책』을 되뇌이면서 『제네바 정신의 사멸』을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예언하기에 수다스럽게 서둘고 있다。그들의 짓는듯한 부르짖음이 안테나와 활자 등으로써 대양을 넘나들고 있다。

몇달 전 어느 한 때 그들은 『제네바 회의의 파탄』을 젓먹던 창자가 끊어지도록 부르짖으며 예언했다。그러나 그들의 몽상과는 달리 『제네바의 정신』이 폭을 넓히게 되였고 보통 사람들의 환호성이 세상에 울려퍼졌다。

너무도 엄연한 현실에 분통이 터진 그 『저명』한 활동가들은 목청을 도꾸어 『제네바 정신의 부정』을 되뇌이면서 닭알 같은 『힘의 정책』을 벼랑에 던지기에 애썼다。그리고 오늘에는 『제네바 정신의 죽음』을 예언하기에 발광하고 있다。워싱톤의 신사들은 마치도 맑은 제네바 호수가에로 놀러나 가는듯이 하면서 그 실은 런던과 파리의 동료들에게 세느강가에 모이라고 타일러도 보고 『제네바 정신』에서 뒷걸음질 칠 것을 속삭여도 보고 게 걸음질 하라고 눈알을 부라리며 울부짖어도 본다。

『제네바 정신』이 폭을 넓히던 9월말에서 10월초까지의 반달도 못되는 동안에 뉴욕에서는 세차례의 주권 폭락이 있었으며 10월 10일의 주권 폭락은 2차 대전 후 처음보는 대폭락이였다。대포를 부여 안은 월스트리트들은 더욱 『제네바 정신』에 대하여 불안을 표시했다。그들은 결국 외교관들과 장군들을 딸라에 얽매여 놓고 울부짖게 하였다。

그러나 몸부림치며 우둔한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끄러운 소요를 그만두라! 력사는 언제나 제 갈길로 간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진실을 말한다。

그들은 에스•에스 대원의 후예를 흰 비둘기처럼 묘사하면서 오리부 나무가지를 안기고 구라파의 안전을 잠꼬대처럼 말한다고…

그들은 또한 세상에는 있지도 않는 『공산 침공』을 떠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랭전』을 씌운 보재기며 속담에 있는 달보고 짖는 개의 꼴과 다를 것이 없다고…

오늘 보통 사람들은 『힘의 정책』을 고집하며 『랭전』의 지속으로 평화의 길을 가로막으려는 것을 견결히 반대하고 있는바 이는 엄연한 현실이며 진리이다。

대양 건너 그 『저명』한 신사들이여! 벼랑에 닭알을 던지는 소요를 그만두라!

바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4렬강 외상이모인 제네바에 고동치는 심장으로 기대에 찬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믿음직한 비행사로 교체되였다

19세기가 자본주의 세기였다면 20세기에는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 승리의 세기이다(로•므•까까노위츠의 보고에서)

실례합니다… 길은 하나 밖에 없으니…

미국 독점체들은 그들의 경제봉쇄가 쏘련 및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저애하게 될 것이라고 어리석게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심한 고통과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은것은 서방국가 자신들이다

장진광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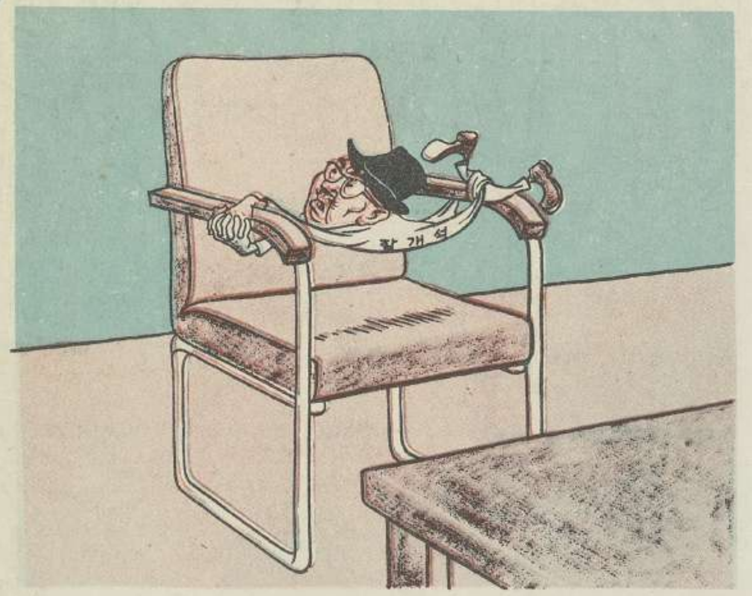
풍랑은 험한데 짐은 무겁고나…

북대서양 블럭(북대서양 동맹기구)국가들의 직접적인 군사비의 총액은 1949년에 185억딸라이던것이 1953년에는 650억딸라로 증가 되였다 이와같은 조치들은 공황을 구원하지못하며 공황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있다

국제유모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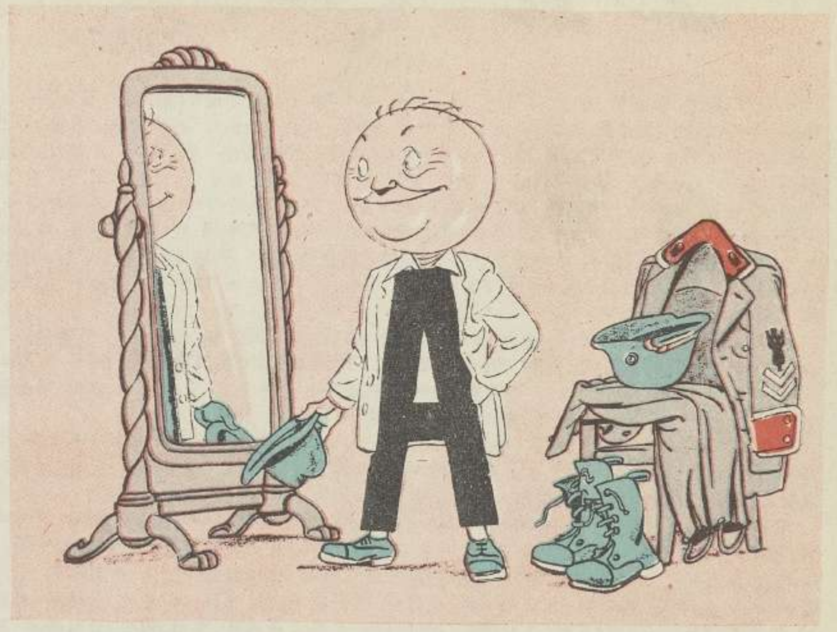
КРОКОДИЛ—"끄로꼬질"

쏘련 풍자 만화잡지"끄로꼬질"1955 • 27호에서 전재
유 • 간파 그림



유 • 엔에서 차지한 안락의자

1955 • 29호에서 전재
보루 • 에피모브 그림



원자—이옷이 과연 내게 더 잘 어울리지 않는가?

움푹한 곳에서의 사소한 중상

국제 정세의 완화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스웨덴 신문 "다겐쓰 뉴헤쩨루"의 몇몇 편집원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어찌된 판인가? —편집원들은 서로마다 울상을 하여 물어 본다— 새 전쟁 계획도, 힘의 정책의 찬양도, 원자와 수소탄의 투기도 없다! 모두가 다만 공고한 평화에 대한 회담에만 흥미를 가지고 있으니! 참 속이 탄다!"

그러나 기쁜 소식에 부디쳤다! 돌연히 쎈쎄이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그럴듯한 문제다! 노루웨이의 도시 부제에서부터 전보가 왔다。 즉 "쏘련의 해병들은 바다에서 불붙고 있는 스웨덴의 배" "오쓰까루 보리에쏜"을 잡으려고 시도하였다"

이 순간에 바로 이 편집국 자신은 적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함선의 역할을 놀았다。 전화는 번갈아 울렸으며 편집원들은 분주히 허벌떡거리며 돌아다니고 타이피스트들은 세세하게 톡딱거렸다。"다겐쓰 뉴헤쩨루" 편집국은 방향을 바꾸어 늘상 항행하던 버릇으로 "랭전"의 코—쓰로 돌렸다。 선장실로부터 명령이 울렸다。 즉 가장 큰 포를 쏘았! 하고

신문은 부제에서부터의 급전이 확실한 보도인가를 기다릴 사이도 없이 신문의 제 일면에다 커다란 제목으로 보도를 냅다 쏘았다。

그런데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찬성의 박수 갈채도,기쁨의 환성도 일어나지 않았다。"다겐쓰 뉴헤쩨루" 신문에 게재된 한 아루쉰이나 되는 제목을 보자마자 독자들은 분격하여 말하였다。 즉 "다시 이 신문쟁이들은 낡은 것을 되풀이 하려고 한다!" 심지어 친척간인 불죠아 출판물까지도 "모든 로써야적인 것의 추격"에 대해서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고야 만 견본으로서 이 보도를 빙자하였다。

문제는 "다겐쓰 뉴헤쩨루"가 신문에다 "폭로"한 바로 그 때와 거의 동시에 다른 신문에 스웨덴 체신국의 보도가 발표된 거기에 있다。 신문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었다。즉 "불타고 있는 스웨덴 함선에 다채로운 깃발을 휘날리며 4척의 배가 원조하기 위하여 다가왔다。 깃발들 중에는 쏘련기도 있었다。 벌써 "오스카루 보리에쏜"이 안전한 상태에 있게 되였을 때 쏘련 해원들은 앞으로 더욱 원조가 필요되지 않는가고 물었다。 스웨덴 선장 닐쓰 안제루쏜은 쏘련 함선의 해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으며 원조의 필요성은 다 지나갔다고 대답하였다。

이 후에 쏘련 함선은 중단되였던 항행을 계속하였다。 분명히 이 보도에는 불붙는 배를 "잡으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언급될 수도 없었다。

이 소식은 "다겐쓰 뉴헤쩨루" 편집국까지도 전달되였다。 중상적인 일제 사격으로부터 코를 찌를듯한 연기가 흩어지자 마자 쓸 데 없이 공연히 냅다 쏘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됐다。 말하자면 온 세상을 한푼짜리 대포로 쏜 격이다。

당장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다겐쓰 뉴헤쩨루"는 약간 남은 위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원용 고무 풍선에 매여 달렸다。즉 "아후돈찌드닌겐"신문이 표현한 바와 같이 "확실히 보다 겸손한 어조로써 사건의 새로운 (즉 정확한……베 • 데) 구실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조그만한 기사를 발표하였다。

물론 우리들은 국제 정세의 완화가 괴로움과 고통으로 되는 몇몇 편집원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랭전"의 좋지 못한 기억의 글 버릇을 버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이 글 버릇은 위험하다。 즉 자칫하면 독자들은 신문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런것으로 벌써 어찌할 수 없게 되였으며 그 글 버릇을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끄로꼬질" 24호에서 전재 (한동신 역)

EULENSPIEGEL—독일 "오이렌스삐겔"

독일 풍자만화잡지"오일렌스피겔"1955 • 40호에서 전재
헤루푸트 • 비드스투르프 그림 (덴마—크코펜하겐)

미국에 있어서의 기쁨과 애교

어느 한 때……

……유명한 독일 극 작가 헤루하르트 하웊트만은 내려 쬐이는 맑은 날에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베르린 시가를 산보하고 있었다。 갑자기 옆을 지나 가고 있든 기마 행렬대로부터 한 기사가 뛰여 나오더니 흠애매……하고 우는 말을 멈추자 고함을 질렀다。

—에이! 원! 당신은 옆을 지나가시는 카이제루 왕을 보지 못했는가?! 모자를 벗으면 어떤가?

하웊트만은 조용히 눈부시게 차린 기사를 바라보고 말을 던졌다。

—아이고! 그럼 일전에 그와 나와 인사하는 사이였단 말인가요?

× × ×

……바그다트 왕은 자기 곁에 현자들을 불러 놓고 왕의 주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을 어떻게 쇠사슬에 얽어 매겠는가를 물어 보았다。그들 중에서 가장 늙은 현자가 말했다。 즉

—어느 한때 부하리 황제는 태양에게 내려 비치는 것을 금지하였습지요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병사들에게 태양의 빛을 잡아서 바다 밑으로 처박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벌써 오래 전서부터 황제도 그의 병사들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있습지요!

"끄로꼬질" 24호에서 전재
(한동신 역)

옳지 못한 습성

안창수 그림

—아이구참… 저애가 또 2점을 받았어요
—아…글세…선생을 한번 불러오면 될건데 뭘 그리오

록음실

『얼굴』

『또 문 닫겠군……』
『뭐?』
『점장 동무 얼굴이 푸루락 붉으락 한걸 보니』
『그러면 문 닫나?』
『신발이 닳게 이 상점에 다니다 보니 인제는 점장 동무 얼굴을 보고도 행동까지 예측하게 됐어』
『응— 그래?』

『3•4분기에 탈 비누와 양말을 상구두 못 탔어 애』
『난 소금과 된장을 타러 벌써 보름두 더 다녔어』
『그렇길래 문천 옥평 소비 조합 상점 점장 동무의 「얼굴」이 소문 났지』
『소문? 뭐라고……』
『「래일 래일」언제나 같은 말루 이 상점에선 밤 자면 그「래일」이 또 「래일」이야……』
『그래 나두 벌써 여러번 다리 맥만 뽑았어』
『그것 뿐이면 좋게… 시끄러우면 아예 강산만 쳐다 보고… 좀 더 도수가 지나면 배를 쑥 내 밀고 얼굴이 푸루락 붉으락 해지고 그 다음은 문을 콱 닫아 버리거든……』
『그러니 시간도 되기 전에…? 글세』
『시간이 다 뭐야…… 기분 좋으면 문을 열고 나쁘면 닫군하지……』

—옥평 과수 농장 전 순 일—

책임감을 못 느끼는 일꾼들

—또 변질된 해산물이요?—하고 손님들은 의아해 하는데……

—그런것 밖에 눈에 보이지 않소—하고 점원은 시쭉해서 대답한다。

서해안 바닷가를 내다 보며 자리잡은 은산군 소비 조합 상점은 언제나 이 모양이다。

주민들은 신선한 생물 반찬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나 군 소비 조합 지도 일꾼들은

—그런 것은 계획 실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지못해 가져오는 것이 몰 나쁜 해산물 뿐이며 그거나마 보관 관리를 잘못해 변질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수지 타산』은 얼마나 잘되였나 하면 9월 판매 계획을 겨우 70% 밖에 수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손님들은 구미에 안맞는 것이나마 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다른 상점으로 가자면 먼 길을 걸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은산군 소비 조합 상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가 하여 의문시하면서 시정 대책을 속히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다。

『글씨 쓰기』

『위원장 동무! 참 글씨 잘 쓰십니다!』
『웬걸……』

위원장 동무는 오른 쪽 소매를 걷어 올리고 정신을 똑바루 차리고 입을 쪼물거리면서 한자 한자 내려 쓴다。

『참 옥필입니다!』

『이왕 써서 붙일 바엔 잘 써야 하지…… 어지러운 글씨로 오히려 벽을 더럽히면 되겠소』

위원장 동무는 서기장 동무가 등 뒤에서서 자꾸 칭찬하는 말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 벼루의 먹을 찍어 있는 재간을 다 발휘한다。

이윽고 위원장 동무는 다 쓴 표어를 들고 일어선다。

그러자 책상 우에는 손 바닥 자리가 큼직히……

돌아 서서 발을 옮겨 디디니 먼지가 풀석…… 표어를 붙이느라고 벽을 어루만지니 벽에도 손자국……

얼마 후 벽에 단정히 붙은 표어 우에는 거미줄이 문양을 두른듯 얼기설기……

『참! 옥필입니다!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며 환절기의 위생 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자!」정말 좋습니다』하고 서기장도 표어가 깨끗해서 흡족해 하는데 청소 사업은 엉망 진창이니 한심한 일……

대동군 망일리에서—

누구의 책임?

—백지 검사를 또 안한 모양이군……

만포 요업 공장 요출공들은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 받았다。

옆에 서 있던 김 종선 검사원이 이 말을 듣더니 노발 대발……

—바쁠때 복잡하게 소지며 백지의 검사 공정을 거칠 필요가 뭐란 말이요 그새 벽돌이나 더 생산합시다 완제품만 검사해도 된단 말이요—라고 하면서 요출만 하라는 것이였다。

—공정 별로 검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도 오작품 벽돌이 자꾸 나는데……

—남의 걱정은 말고 자기 맡은 사업에서 충실하오 검사는 내가 맡은 부문이니……

검사원이 사라지자 로동자들은 중얼거렸다。

—내 할말 사돈이 한다드니 정말 누가 할 소린지—

—글세 말이야 검사원 동무 자신이 자기 사업에 충실해서 공정 별로 꼭꼭 검사한다면야 곰사둥이에 삐뚜리며 반동가리 벽돌이 생산될 리 만무할게 아닌가?

그 후에도 김 종선 검사원은 여전히 완제품만 검사하였다。 그 후 이 공장에서는 지난 상반년도만 하드라도 총 생산중 약 절반이 오작품이였다。

이 원인을 밝힐 때 김 종선 동무는 "우리 공장 로동자들은 기술 수준이 어리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안일한 사업 태도의 후과를 로동자들에게 넘겨 씌우며 하였다。

편집 위원 장 진 광(책임 주필) 박 무 백 광 호 발행소 활 살 (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 1955. 11. 1. ㄱ—30218
서 만 일 신 불 출 리 갑 기 정 현 웅 인쇄소 국 립 종 합 인 쇄 소 발행 1955. 11. 15. 값 (50원)

LIBRARY OF CONGRESS
0 041 643 847 A

미국제『평화』의 비둘기

미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이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결정적 장애로 되고 있다는 것은 숨길수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괴뢰 매국 역도들은 이를 평화의 사자로서 꾸며보려고 어리석은「결의안」까지 만드러 내고 있다

장진광 그림